



COVER STORY



대구지방변호사가 주축이 된 평화사절단이 방일 이틀째인 지난 24일 고마쓰전기회사에서 평화하는 일본측 인사들에게 서예가 노상동씨의 작 '심세득인(審勢得人·형세를 잘 살피고 사람을 얻다)'을 선물로 전달했다. 앞줄 왼쪽에서 넷째가 강제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다섯째가 대구 평화사절단을 초청한 고마쓰 아키오 <제>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이다.

'21세기 조선통신사' 대구평화사절단, 시마네현을 가다



글·사진=박진과자사 pajika@yeonnam.com

◆누가 갔나

최봉태 등 대구지역 변호사 5명과 강제위안부 피해 이용수 할머니

◆왜 갔나

'위안부 강제동원 시인·배상하라' 지난6월 아베내각에 촉구·결의한 시마네현 의회의 용기 격려 위해

◆어떻게 갔나

우익의 한달 이상 계속된 시위로 시마네현 의회에서 오지말라 하자 日 양심적 인사들이 초청 '결단'

320년 전(1693)의 일화다.

조선 숙종 때 조선어부 40여명이 울릉도 근해에서 고기를 잡다가 일본어부의 영유권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시비 끝에 안양북과 박아둔이 일본에 강제 납치됐다. 둘은 9개월간 일본에 억류당한 상태에서도 예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당당하게 주장했다. 안양북은 3년 뒤 대구로 선단을 이끌고 다시 울릉도를 찾아 근해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부를 붙잡고 2차 도일을 해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안양북을 비롯한 조선 백성의 눈부신 노력으로 에도막부는 결국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울릉도·독도 근해에서 일본 어민의 어업활동을 금지시켰다. 이른바 '울릉도쟁계(爭界)'다. 일본에선 이 사건을 '죽도일건(竹島一件)'이라 한다.

숙종은 울릉도쟁계와 같은 조·일간 영유권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 시험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자 했다. 1696년 열린 대과(大科)에서 임금은 응시한 유생들에게 일본의 울릉도·독도 칩탈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가운데 의성지여 선비 신덕함(神德函)이 '심세득인(審勢得人)'이란 현답(眞答)을 냈다. 즉, '형세를 잘 살펴 분해해결에 적합한 사람을 얻어야 한다'라는 의미였다. 현대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영토분쟁전문가를 잘 선정해야 하며, 나아가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을 얻어 분쟁을 해결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같은 해법은 3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강제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두고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독도 칩탈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건 일본이 먼저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2월22일)을 제정해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 마쓰에시에 있는 시마네현 3청사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자료관까지 설치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보수적인 아베정부는 올해 기념식에 중앙정부 차관을 보냈으며, 국가기념식으로서까지 승격시킬 계획이다.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했던 경북도는 2005년 단교를 선언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 올해는 민주당 지도부가 독도를 방문하는 등 일본의 우경화에 맞서 영토수호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교에서 '심세득인(審勢得人)'의 지혜보다 '심세권(審勢權宜·형세를 살펴 임시방편으로 처리함)'의 조급함과 미숙함을 드러냈다.

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지특별위원회 위원장)는 10여년간 일제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노무자 배상, 독도 영유권수호문제를 법률로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21세기에 완성한 안양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는 "경북도가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끊은 것은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의 일부 경망스러운 정치인의 행위는 민족주의와 영토주의를 자극해 일본 우익의 준동을 발호하게끔 했다"고 지적한다.

지난 6월26일 시마네현 의회는 아베내각에 △위안부 강제동원 및 성노예 시인과 역사적 책임 수용 △위안부에 대한 사죄 및 배상 △위안부 강제사살에 대한 교육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본을 제외한, 세계의 언론은 시마네현의 결의를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독도와 일본 강제위안부 문제의 법률적 해결에 앞장서 온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석영기)는 평화사절단(단장 방문일)을 꾸려 일본 시마네현을 격려 방문하기로 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당초 시마네현 의회를

"한국과 국교 단절하라" 日 우익의 '황당한 환영'



지난 23일 대구지방변호사가 주축이 된 평화사절단이 일본 돗토리현 오키노 공항청사에 도착한 뒤 버스를 타고 이동하려는 순간,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한국과 국교를 단절하라'는 현수막을 평화사절단에 들어 보이며 가슴시위를 벌이고 있다. (위) 방일 이틀째인 24일에도 '평화사절단'이란 우익단체 회원들이 시마네 현민회관 앞에서 '위안부는 날조다' '돌아오라 다케시마'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방문하려 했으나 일본 우익단체가 시마네현청 앞에서 한 달여간 '결의문 가결 철회시위'를 계속함에 따라 사절단의 방문을 거절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고마쓰 아키오 <제>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한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빛나는 미래를 생각하는 여성모임'이 평화사절단을 초청했다.

21세기 조선통신사격인 평화사절단은 '심세득인'이란 서예작품과 시마네현 의회 의장과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에게 전한 감사편지를 지니고 지난 23일 동해를 건너했다.

이번 방문에는 박현상·최봉태·방문일·임문우·김병익 등 대구지역 5명의 변호사와 이용수 강제위안부 피해자, 오상태 대구대 전 신문대학장 등이 동행했다. 일본의 우익단체가 평화사절단 입국 정보를 미리 알고 시마네현에 길걸레 방인을 막겠다는 소식이 전해져 긴장과 우려 속에 방일이 이뤄졌다. 그 와중에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의 우익에게 줄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다.

이번호 위클리포는 지난 23일부터 2박3일간의 평화사절단 동행소포리다. 최봉태 변호사의 특강,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이 중심이 된 심포지엄과 다케시마 자료관을 현지에서 단독취재했다. 고마쓰 아키오 이사장 등 일본의 양심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왔다. W2~3면에 관련기사

INSIDE

日양심이 '위안부' 를 안아주던 그날, 日우익은 "위안부는 날조" 시위



1 대구평화사절단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한 강제위안부 피해자 이응수 할머니가 지난 24일 고바스 아키오 민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에게 강제위안부 할머니의 작품을 전달한 뒤 포옹하고 있다. 2 평화사절단 박현성 대구변천 독도특위 위원(오른쪽)이 대구지방방호사(최정 석왕기)를 대표해 고바스 이사장에게 감사편지를 전하고 있다. 3 시마네현 고바스친구회 대표의실에서 열린 이응수 강제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을 들은 김범익 변호사(가운데)가 눈물을 머금고 있다. 4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자료를 찾은 평화사절단이 곧은 표정으로 일본 측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구 평화사절단 시마네현 방문기

글: 사진·박진경기자 parkj@yeongnam.com

평화사절단의 이번 방문이 성사된 배경에는 '고바스 아키오'라는 한 일본기업인의 용기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고바스친구회 대표이자 <제1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 직책으로 평화사절단을 초청했다.

평화사절단은 지난 23일 첫날 초저녁 후과 함께 오고공항 인근 문화관경을 둘러봤다. 이튿날 오전에는 다케시마 자료를 찾았고, 오후에는 이응수 강제위안부 피해자와 최봉태 변호사가 고바스친구회 대표의실에서 각각 증언과 특강을 했다. 이후 초저녁 속 페널과 평화사절단 간 한·일 현안에 대한 토론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일본 사법경찰청 조사 위안부단체의 돌발행동에 대비해 첫날부터 귀국할 때까지 우리 일행을 경호했다.

◆23일, 일본 우익과 양심을 만나다

○...인천공항에서 돗토리현 오노고공항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10분 걸린다. 비행기는 이날 오전 9시50분에 출발해 11시쯤 목지지에 도착했다. 오노고 공항은 규모가 작지만 매우 깨끗했다. 평화사절단은 간단한 입국수속을 마치고 공항로비에 들어섰다. 고바스 이사장과 인연이 하카가와 가츠히로씨 등이 일행을 영접했다. 공항청사 밖에 사법경찰로 보이는 경호원 5-6명이 눈에 띄었다.

버스 타고 공항청사를 빠져나가는 순간 일본의 우익단체 회원들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한국과 국교를 단절하라'는 현수막을 들어 보이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현수막에는 작은 글씨로 '한국은 거짓말쟁이, 독도, 역사상조각'이라고 쓰여 있었다. 일행은 시위대를 무시했다. 버스 안에서 약 1시간 인내를 버텼다.

고바스 이사장은 "20년간 평화와 관련된 행사를 했지만 이번 심포지엄이 한·일 간 평화는 물론 인류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덕담을 했다. 이어 "세상에 없으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공황에 있는 일본 우익이 시위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언뜻인 하카가와씨는 "3·1일본 쓰쓰미 때 한국의 지인들이 편지로 위로를 해 주기도 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타 사치코 민간자연과학연구소 감사는 "이응수 할머니가 남과 같지 않다. 만나 뵈게 돼 반갑다. 피곤한 기색 없이 젊은 모습이라 보기 좋다"고 말했다. 방문일 평화사절단 단장은 "시마네현청과 현의회 방문이 무산됐지만 고바스 이사장이 초청해 귀를 감사한다"고 인사를 했다. 최봉태 변호사는 "34년부 터 슬하에 일본을 다녀온 오노가씨를 불러카드를 환영을 받은 건 처음이다.

만만 때 이들을 초청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돗토리현과 강원도와의 자매결연을 기념해 조성한 가계노조 즉, '바람의 연대' 공연으로 향했다. 이 공연은 예로부터 동해에서 조난을 당한 한국 어민들이 돗토리현 근해에서 표류하다 일본인의 구조로 목숨을 건지고 귀국하게 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해 만든 것이다. 공연 안에는 한국식으로 지어진 우호대와 석탑, 종각, 돌 바위에 등이 있다. 간간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교류기념 자료관과 우호공원을 둘러봤다. 공연에는 무궁화와 백일홍이 만개했다. 우호교류기념비에 일본 해·동해 글자가 병기돼 있었는데, 누군가 '동해'란 한자를 훼손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해안풍경이 영락-울진 간 등해와 다를 바 없어 친숙했다. 일행은 아카사키항 인근 국도9호선변 식당에서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고바스 이사장이 대평을 주도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돗토리 시에서 서에서 택시를 탔다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했어요. 당시엔 굉장히 불쾌했으니 그것을 계기로 역사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명성황후 시해와 장제스 등 일본인이 저지른 역사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싶었어요. 회사 직원들과 함께 남장대학 살기날과 하얼빈731부대유적지, 하와이진주만, 한국 독립기념관, 서울시대문명무술 등을 찾아 현장을 하고 헌금을 했어요. 처음엔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생각했지만 진심을 아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일본인은 나를 '회한한 사람' '미스터 리한 사람'으로 보죠. 하지만 나는 역사사지(歷史地誌)의 입장으로 사람과 사물을 보려고 합니다. 평화활동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고바스 이사장은 또 "그 결과물로 중국 사서(四書)에서 발췌한 내용을 요약정리해 한·중·일 3개국어로 편찬했으며, 민간자연과학연구소를 설립해 평화사상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화사절단은 점심시사를 마친 뒤 돗토리현 도고코 호반에 위치한 일본 최대의 중국영원인 연초(燕草)를 찾았다. 이 공연은 돗토리현과 중국 허베이성과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조성했다. 베이징 이화원의 10분의 규모였지만 매우 아름답다. 대구에도 모범재와 녹동서원 등 한·중·일 평화와 우호를 상징하는 유적이 있지만 이를 관광자원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사절단은 전사만 마당에 있는 공자와 맹자, 손자상(孫) 등을 감상했다. 이 인물상은 고바스 이사장이 연초연공원에 기증한 것이다. 유학을 통해 평화사상을 전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상징적인 셈이다.

이 자리에서 고바스 이사장의 지인인 다카다 요시토 미 전 시마네현립도서관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그는 자



일본 돗토리현에 있는 '바람의 연대' 공연을 강연하고 돗토리현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공원이다. 한국과 일본의 상호우의를 다짐하는 교류기념비에 일본해·동해라는 글자가 병기돼 있었는데, 누군가 '동해'란 글자를 훼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초청자 등 다수 인사들 "한일평화 계기 되기를"

우익, 따라다니며 시위 사법경찰 참여한 경호 의회 방문은 결국 무산

'다케시마(독도)자료관' 일본평 주장 영상 제공 안색 곤고 입술 파르르

사절단 평화 주제 특강 시마네현 의장 등에게 감사의 편지도 전달

신문 "일본평화헌법개정 반대 중부지역 회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안중근의 유목이 전신 내용을 보고 놀랐다. 특히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글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또 "안중근은 사실적으로 동양평화의 선구자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만찬장에서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일본의 우경화와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호보 다케히코 전 시마네현립대 법문학부 부학장은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싫어 민주당을 선택했는데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서 국민은 아베를 선택했다. 하지만 아베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 국제문제는 청춘을 뒤돌면 평화헌법개정은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개인의 신념이 중요하다. 올바른 일은 항상 소수로부터 시작된다. 일본국민이 고바스 이사장 같은 사람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면 일본은 이미 변해 있을 것이다. 위안부문제는 청춘을 뒤돌면 평화헌법 반대 시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치노 도무 유리하마유키 이사장은 "도쿄대 제학 시절 제국주의 반대 시위경력이 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40년간 돈을 버느라 사회에 관심이 적었다. 그런데 5년 전 유학을 함께 공부하면서 고바스 이사장과 알게 됐다. 그를 만나면서부터 대학생활의 '나'가 다시 되돌아간 것 같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군자라 할 수 있다. 또 역사로부터 진실을 배우어야 한다. 평화헌법을 개정하면 지금의 어린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할 상황이 줄어들 것이다. 개학 때 아이들 앞에서 한국의 평화사절단을 만났던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24일, 다케시마자료관 방문

○...돗토리현 오노고시에서 시마네현이 있는 마쓰에시까지의 승용차로 약 40분 걸린다. 시마네현은 경북도와 15년간 교류를 하다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면서 경북도로부터 단교를 당했다. 고바스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고바스친구회도 시마네현 마쓰에(松江市)에 위치하고 있다. 시마네현에 있는 이즈모(出雲)시는 일본에서 가장 근심사가 있는 지역이다. 시마네현의 옛 이름이 이즈모이기도 하다. 지난 6일 일본 최초의 경관급항공모함 이즈모호도 이즈모시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6월26일 시마네현의회가 일본정부와 강제위안부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놀랄 만한 뉴스였다. 고바스 이사장 같은 이들이 시마네현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이날 오전 평화사절단의 첫해 탐방지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자료관이었다. 사절단은 비가 내리

는 가운데 경호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자료관으로 향했다. 일본 우익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3-4명 자료관 앞에 보였으나 다행히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다. 당초 이들은 오전 10시로 돼 있던 평화사절단의 자료관 방문시각에 맞춰 자료관 앞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었으나 사절단이 오전 9시에 도착하면서 시간이 어긋났다.

평화사절단이 시마네현 제3청사에 있는 다케시마 자료관에 들어서자 담당공무원이 안내했다. "독도는 일본 땅"이란 것을 주장하는 영상을 보던 평화사절단의 안색이 모두 굳어졌다. 이응수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약 30분간 자료를 둘러본 평화사절단은 한결같이 "음릉도도 있는 독도박물관에 비해 규모와 내용이 빈약하고, 조잡하기 이를 데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평화사절단이 일찍 자리를 뜨는 바람에 일본의 우익단체는 장소를 옮겨 시마네현민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행복사절단'이란 우익단체 회원 20여명이 '위안부는 날조' '들어오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 등이 적힌 피켓을 차며 시위를 벌였다. 응원도 못한 10여명의 시민이 카메라로 집회현장을 찍고 있었다.

오후 2시부터 고바스친구회사 1층 대회의실에서 170여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평화와 주제로 한 한국평화사절단의 특별강연회가 열렸다. 강연에 앞서 청중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독립투쟁을 위해 무려분류된 참전연호사자를 백범당원 후세 다초지 변호사의 영상을 시청했다. 그는 일본인 최초로 한국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았으며, 자유법정단을 조직해 일본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발전에 헌신한 인물이다.

같은 시각 평화사절단 박현성 대구변천 독도특위 위원 이 회사 2층 정견실에서 대구지방방호사(최정 석왕기)를 대표해 고바스 이사장에게 석 왕정의 감사편지를 전했다. 강제위안부배상을 의결한 시마네현의 당장에 전달할 편지도 함께 건넸다.

방문일 평화사절단 단장은 서해가 노상동 화백이 쓴 '심세득인(審勢得人)' 작품을, 이응수 할머니는 강제위안부들의 작품집인 '함해 바람에 빠졌다'를 각각 고바스 이사장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25일, 고바스 이사장에게 쏟아진 악플

○...평화사절단은 이날 오전 시마네현 아다치미술관의 정원을 관람한 뒤 오노고공항으로 향했다. 귀국 길에 고바스친구회사 홈페이지에 고바스 이사장을 비난하는 수십개의 댓글이 올라왔다는 말을 들었다. 그 중에는 '아직도 빈곤국가 수준으로 외국으로 매춘부를 배출하는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맞느냐' '일본군이 강제로 위안부를 연행한 게 아니라 투쟁자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위안부들 군인의 몇 배나 되는 급여를 받았다' '한국인의 날조를 눈앞에서 마라'는 등 진실을 날조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강치와 함께 수영하는 동화책 만들어 “독도는 일본땅” 아이들에 ‘주입’

다케시마자료관 둘러보니

글·사진=박진관기자 pajika@yeonam.com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자료관은 시마네현 제3청사 2층에 있다. 1층은 시마네현의 역사공문서와 행정자료 보관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청사 대로변과 로비에 다케시마 자료관이란 표지판이 있다. 3층사 맞은편에는 마쓰에성(城)이 있고, 현민회관이 인근에 있다. 개관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화요일엔 휴관한다.

자료관은 약 165㎡(50평) 규모다. 내부에는 다케시마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는 각종 시청각자료가 전시돼 있다. 또 다케시마 영상물을 통해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란 것을 선전하고 있다. 특히 2개의 다케시마 모형을 비롯해 1900년대 초 일본 어부들이 다케시마 근해에서 감치(대형 물범의 일종)를 포획하던 사진이 주목을 끈다.

현재 방학을 맞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기획전을 열고 있다. ‘매치가 있던 섬’이란 제목의 동화책도 있는데, 이 책은 올해 2월27일 자료관에 반입됐다.

‘매치’는 물범의 일종으로 감치의 일본 속어인 뜻이다. 이 책은 스기하라 유미코시(오기섬 거주)가 펴냈다. 일본 어린이들이 다케시마 근해에서 감치와 함께 수영하면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을 간접적으로 부각시키는 내용이다.

시마네현과 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가 공동으로 발간한 ‘다케시마어 돌아오라’는 한글·영문판 리플릿과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 등의 책자도 비치돼 있다. 이 리플릿에는 한국이 다케시마에 동태와 초소, 막사 등을 설치해 불법점거를 하고 있으며,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영토임이 확실하다고 쓰여 있다. 외국인도 이걸 보면 다케시마가 진짜 일본 땅이란 믿을 만하다. 특히 다케시마의 수도를 ‘남도(男島)’, 동도를 ‘여도(女島)’로도 부르고 있다.

다른 한편에는 다케시마와 관련된 각종 도서를 비롯해 고지도 및 옛 문헌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케시마를 보도한 신문과 잡지 등도 모두 비치돼 있다.

특히 일선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에게 다케시마가 일본 땅임을 주입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는 사진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1904년 이후의 것이었다. 1904년은 실질적으로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상태였다. 기자가 자료실 내부를 촬영하자 담당공무원이 단호하게 저지했다.

특히 일선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에게 다케시마가 일본 땅임을 주입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는 사진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1904년 이후의 것이었다. 1904년은 실질적으로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상태였다. 기자가 자료실 내부를 촬영하자 담당공무원이 단호하게 저지했다.

평화시절단이 일본 측에 던진 촌철살인 어록

△박현상 변호사
“저 외숙부가 흥순집 독도의용수비대장이었다. 씨암 닭은 원래 주인만이 잡을 수 있고, 한 마리는 반드시 남겨준다.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서식하던 감치의 씨를 밀린 걸 보니 독도의 주인이 아닌 게 확실하다.”(다케시마 자료관을 둘러본 뒤 점심식사 자리에서 일본 측에 자신을 소개한 뒤 평등권 전 율령군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최봉태 변호사
“일본 우익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싶다.”(심재득인(熊澤得入)의 뜻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평화노력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

△임문우 변호사



1 지난 2월27일 다케시마 자료관에 반입된, 감치를 주제로 한 동화책. 2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다케시마 관련 책자. 3 지난 24일 평화시절단이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속사정은 감치를 계속 잡게 해 달라고 조르는 요구로밖에 보이지 않더라.”(다케시마 자료관의 부실한 전시자료를 평가하며 한 말)

△방문일 변호사
“시마네현 의장이 평화시절단 방문을 거절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방문을 허락했다면 의정실에서 차 한잔 마시며 30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고마쓰 이사장을 비롯한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일정을 함께해서 고맙다며)

△김병희 변호사
“평화시절단 변호사 가운데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계급은 가장 높다. 대한변협 감사선거에서 높은 지지

율로 당선됐다. 선거에 이긴 전략을 당선에게 알려주겠다.”(고마쓰 이사장이 신임하고 지지하는 이소에게 구의원 선거에서 두 번이나 낙선했다는 말을 듣고)

△이용수 할머니
“다음부터는 3시간을 달라.”(이용수 할머니에게 주어진 중언 시간은 40분이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중언이 계속되면서 주체 측이 이를 제지하자 말을 자르지 말라면서)

△오상대 대구대 전 인문대학장
“고마쓰 이사장은 구름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 같더라.”(고마쓰 이사장의 학식과 사상, 고매한 인품을 평가하며)

■ 평화시절단을 초청한 고마쓰는 누구

박진관기자 pajika@yeonam.com

고마쓰 아키오(小松 昭夫·68)는 자동차터의 물관리시스템 생산 및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주)고마쓰전기산업 대표다. 그는 성공한 중견기업인이자 일본의 양심이다. 한국의 한 기업에도 무상으로 기술이

전을 알 만큼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현재 고마쓰코리아 한국지사가 서울에 있다. 그는 시마네현 야쿠모리 출신이다. 마쓰에 공고를 졸업하고 농기구회사에 들어갔다 회사로 도산으로 1973년 동생과 함께 시마네현에서 고마쓰산업을 설립했다. 그는 ‘작은 소나무’라는 이름과 달리 ‘큰 소나무’라 부를 만하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해 반드시 사죄하고 철저히 보상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독립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등을 비롯해 중국난징대학살기념관, 중국국민항일전쟁기념관, 731부대부대유적기념관 등 전 세계에 저지른 일본의 만행 지역을 찾아가 한화와 한글을 하고 있다. 또 해마다 인공군사투포럼에는 한국을 찾아 추모한다. 2005년에는 일본인으로는 처음 일본의 진주만공격기념일을 맞아 하와이 USS이리조나 메모리얼을 헌화했다.



‘침략전쟁 사죄·보상’ 지론 한·중·일 평화운동에 헌신

그는 94년 인문학연구소 격인 <제>인간 자연과학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외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연구소의 모토는 ‘천명을 다할 때까지 즐겁고, 유쾌하게, 항구적으로 살 수 있는 지구사회 창출’이다.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출판과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한·중·일 평화운동에 헌신하고 있다. 특히 유학을 통해 동양 삼국이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일례로 돗토리현에 있는 중국시 정일인 연초엔(燕趙園)에 공자와 맹자, 손자상(像)을 제작해 기부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평화를 위해 여성의 역할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빛나는 미래를 생각하는 여성의 모험’을 발행해 ‘화(和)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초청, 중언한 것도 그의 결단이다. 그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할 때까지 화(和)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번 평화시절단도 그가 초청했다.

그는 일본 우익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위법하고 불법한 상태에서도 평화시절단의 경비(식비, 교통비, 입장료)를 흔쾌히 부담했다. 기자가 “회사가 우익으로부터 불매운동 등의 위협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도산을 각오하고 하는 일”이라며 결연한 자세로 말했다.

■ 한·일 평화 심포지엄 최봉태 변호사 특강

박진관기자 pajika@yeonam.com

지난 24일 ‘인간자연과학연구소’와 ‘빛나는 미래를 생각하는 여성의 모험’이 주최한 한·일 평화심포지엄이 일본고마쓰전기회사 1층 대회의실에서 17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청중 가운데 일본 우익단체 회원 4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먼저 고마쓰 아키오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과 사토 ‘빛나는 미래를 생각하는 여성의 모험’ 대표가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이용수 강제위안부 피해자와 최봉태 변호사(사건)가 각각 증언과 특강을 했다.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 숙연한 분위기 속에 강제위안부로 끌려갔던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동안 대부분의 청중은 눈을 감고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몇몇은 메모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최봉태 변호사는 위장한 일본어로 일본이 강제위안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사자후를 토론했다.

최 변호사는 “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이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한국 역시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측 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이 두 나라를 야만국가라고 손가락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청구와 관련해 중·일 공동성명을 따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해 일본사법부의 권위를 높였다”며 “법치주의의 극기인 일본이 마땅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대한변협과 일본변협도 공동으로 일본 강제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일본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소송과 관련해 피고 기업인 신원철주금(옛 일본제철)이 한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르면 배상도 배웠음에도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터무니없는 판결을 했다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다”며 비판했다.

중언과 특강이 끝난 뒤 청중의 질문을 받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 우익단체 회원 역시 조용하게 앉아 있었다. 회의실 밖에선 화성기로 ‘위안부는 날조다’라는 고함소리가 들렸다.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하면 한·일 모두 야만국가 전락

カバーストーリー

日本の良心が'慰安婦'を抱いてくれたその日、日本で右翼は"慰安婦は捏造"デモ

大邱(テグ)平和使節団島根県訪問記

招待者など日本側の人物たち

"韓日平和のきっかけになってほしい"

- ◆23日、日本の右翼と良心に会う
- ◆24日、竹島資料館訪問
- ◆25日、小松理事長に向けられた悪質な書き込み

<写真キャプション>

大邱(テグ)平和使節団の一員で日本を訪問した強制慰安婦被害者のイ・ヨンスさんが24日、小松昭夫人間自然科学研究所理事長に強制元慰安婦の作品集を渡した後、抱擁している。

平和使節団パクヒョンサン、大邱(テグ)弁護士協会の独島特別委委員(右)が大邱(テグ)地方弁護士呉会(会長ソクワンキ)を代表して小松理事長に感謝の手紙を伝えている。

島根県小松電機産業の大会議室で開かれた強制慰安婦の証言を聞いていた金ビョンイク弁護士(中央)が涙を拭いている。

島根県、竹島(独島の日本式名)資料館を訪れた平和使節団が硬い表情で日本側資料を見ている。

日本、鳥取県にある'風の丘'公園は江原道と鳥取県の姉妹提携を記念するために作られた公園だ。韓国と日本の相互友好を誓っている交流記念碑に日本海・東海という文字が併記されていたが、誰か'東海'という文字が毀損した痕跡が残っている。

招待者など日本側の人物たち

招待者など日本側の人物たち

"韓日平和のきっかけになってほしい"

右翼、付きまといながらデモ

私服警察嚴重な警護

議会訪問は、結局中止

‘竹島(独島)資料館’

日本の領土主張映像提供

表情がこわばる

使節団平和テーマの特別講演

島根県議長などに

感謝の手紙も伝達

平和使節団の訪日を実現された背景には‘小松昭夫’という日本の企業家の勇気と決断があったからこそ可能だった。彼は小松電機産業の代表であり、〈財〉人間自然科学研究所理事長の資格で平和使節団を招待した。

平和使節団は23日、初日の招待者側と一緒に米子空港近くの文化観光地を視察した。翌日午前には、竹島資料館を訪問し、午後には李ヨンス強制慰安婦被害者とチェ・ボンテ弁護士が小松電機産業の大会議室でそれぞれの証言と特別講演を行った。その後、招待者側のパネルと平和使節団間の韓日の懸案に対する討論と記者会見が行われた。

日本私服警察が右翼団体の突発行動に備えて初日から帰国日まで私たちを警護してくれた。

◇…仁川空港で鳥取県米子空港までは飛行機で1時間10分かかる。飛行機は午前9時50分に出発し11時ごろ、目的地に到着した。米子空港は規模がわりと小さかったが、とてもきれいだった。平和使節団は簡単な入国手続きを終えて空港ロビーに入った。小松理事長とジャーナリストの早川和宏さんらが一行を出迎えた。空港庁舎の外に私服警察に見える警護員5~6人が目立った。

バスに乗って空港庁舎から出て行く時は日本の右翼団体の会員らが“竹島(独島の日本式名)を不法占拠している韓国と国交を断絶”という垂れ幕を持ち上げ、奇襲デモを行った。垂れ幕には小さな字で‘韓国はうそつき、泥棒、歴史の捏造国家’と記されていた一行はデモ隊を無視した。バスの中で両側間の挨拶が交わされた。

小松理事長は“20年間平和関連の行事をしたが、今回のシンポジウムが韓日間の平和はもちろん人類平和の新しい始まりを知らせるきっかけになったらいいと挨拶をした。続いて”世

の中に、役に立たない人はないと思う。空港で日本の右翼がデモするのを見たがそんな人たちとも一緒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見ている”と述べた。言論人早川さんは”3・11 日本津波の時、韓国の知人たちが手紙で慰めてくれてありがたかった。どんな理由でも戦争は阻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た。

稲田幸子人間自然科学研究所監査は”イ・ヨンスさんにお会いできてうれしい。疲れた様子もなく、若い姿でいい”と述べた。訪問日平和使節団団長は”鳥根県庁と県議の訪問が中止されたが、小松理事長が招待して頂いたことに感謝する”と挨拶をした。チェ・ボンテ弁護士は”94年から数え切れないほど日本にきました、今日のようにプラカードに歓迎を受けたのは初めてだ。晩餐会の時にこれらを招待して率直に対話をしたい”と述べた。

使節団は、鳥取県と江原道との姉妹提携を記念して造成した「カゼノオカ」すなわち、'風の丘'公園に向かった。この公園は昔から東海で遭難し漂流する韓国漁民が鳥取県近海で日本人の救助で命を救われ帰国することになった歴史的事実を記念して作った場所だ。公園の中には韓国式に建てられたウホデと石塔、鐘楼、石風車などがある。たまに雨が降る中、交流記念資料館と友好公園を見てまわった。公園には無窮花(ムクゲ)とサルスベリが満開していた。友好交流記念碑に日本海・東海文字が併記されていたが、誰かが'東海'の漢字を毀損した跡が鮮明に残っていて苦い気がした。

海岸風景が、盈徳(ヨンドク)~蔚珍(ウルジン)間、東海と変わらない気がして親しく感じた。一行は赤碕港付近の国道9号線沿いの食堂で昼食をした。この席では小松理事長が対話を主導した。

彼の話のを聞いてみよう。

”農業機械事業のためにソウルでタクシーに乗っていたが、日本人ということを理由に乗車拒否を受けました。当時はとても不愉快だったが、それをきっかけに歴史の勉強を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明成皇后の殺害と創氏改名など日本人が犯した歴史の過ちに対して謝罪したかったです。会社の同僚と一緒に南京大虐殺記念館とハルピン 731 部隊の遺跡地、ハワイ真珠湾、韓国独立記念館、ソウル西大門刑務所などを訪れて献花し、献金をしました。最初はビジネスレベルでそう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てたけど、漸く私の本心を知ってくれる人たちが増えています。普通の日本人は私を'珍しい人' 'ミステリアスな人'とみましよう。でも私は「易地思之」の立場で人と物を見ようとしています。平和活動は誰かが必ず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じゃないですか。

小松理事長はまた、”その結果、中国の四書から抜粋した内容を簡単にまとめ、韓・中・日

の3ヶ国語（英語を加えて四か国語）で編纂し、人間自然科学研究所を設立し、平和思想を伝播している”と述べた。

平和使節団は昼食を終えた後、鳥取に位置する日本最大の中国庭園である燕趙園を訪れた。この公園は、鳥取県と中国河北省との姉妹提携をきっかけに造成した。北京頤和園の10分の1規模で、非常にこじんまりとしていた。大邱にもモミヨンジェと鹿洞書院など韓・日・中の平和と友好を象徴する施設があるが、これを観光資源としてきちんと活用していないと思った。使節団は、展示館庭にある孔子と孟子、孫子(像)などを鑑賞した。この人物像は小松理事長が燕趙園公園に寄贈したものだ。儒学を通じて平和思想を伝播するという意志を示したシンボルであるわけだ。

この席で小松理事長の知人の高多彬臣元鳥根（鳥取）県立図書館長のあいさつの言葉があった。彼は自分を‘日本平和憲法改正反対中部地域会員’と紹介した。彼は“特に安重根義士の遺墨が展示された内容を見て驚いた。特に‘一日でも本を読まなければ口の中にとげが生える’という文章を見て大きな感銘を受けた”とした。また“安重根義士は思想的に東洋平和の先駆者だった”と評価した。

当日の晩餐会で日本の良心的な知識人と本格的に対話を交わす機会を持った。この席では日本の右傾化やアベノミクスに対する批判が続いた。

保母武彦元鳥根県立法文学部副学長（鳥根大学副学長）は“（国民は）自民党の長期政権を嫌い、民主党を選択したが、国民の期待に及ばなかった。それで国民は、安倍を選択した。しかし、安倍が成功するはずだと信じる人は今、誰もいない。国債問題に集中し続けると、平和憲法改正は難しいだろう。秋になるとアベノミックスのバブルが消える結果を迎え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主張した。

彼は、引き続き、“個人の信念が重要である。正しいことはいつも少数から始まる。日本国民が小松理事長のような人を認める社会になればすなわち、日本が変わ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慰安婦の青春を戻すことは出来ませんが必ず賠償してもら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湯梨浜学園理事長は“東京大学在学時代、帝国主義反対デモの経歴がある。しかし、大学卒業後40年間お金を儲けるのに懸命で社会への関心が少なかった。ところが5年前、儒学と一緒に勉強しながら小松理事長と知り合いになった。彼に会ってから大学時代の‘私’にまた逆戻りしたようだ。すべての事を自ら解決することができてこそ、君子と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歴史から真実を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平和憲法を改正すれば、今の子どもたち

が戦争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が来るかもしれない。始業式で子供達の前で韓国の平和使節団に会った話をする”とした。

◇…鳥取県米子市から島根県庁がある松江市までは車で約40分かかる。島根県は慶尚北道と15年間交流をしてきたのに2005年‘竹島の日’を制定し、慶尚北道から断交を喫した。小松理事長が代表を務める小松電機産業も島根県松江市に位置している。島根県にある出雲市は日本で最も大きな神社がある地域である。島根県の旧名が出雲でもある。先頃6日、日本最初の軽量級航空母艦出雲号も出雲の名前を取ったものだ。そんななか、先週6月26日、島根県議会が、日本政府が強制慰安婦に対して賠償する責任があるという決議案を採択したのは驚くべきニュースだった（賠償責任ではなく、軍関与を認める河野談話にのった解決を求めた）。小松理事長のような人たちが島根県の勇気ある行動を引き出すことに貢献した。

同日午前、平和使節団の第一の探訪地は竹島(独島の日本式名)資料館だった。使節団は、雨が降る中、警察の厳重な警護を受け、資料館に向かった。日本の右翼団体の会員に見える人たちが3~4人の資料館の前に見えたが、幸い、衝突が起こることはなかった。当初、彼らは午前10時になっていた平和使節団の資料館訪問の時刻に合わせて資料館前でデモを行う予定だったが、使節団が午前9時に到着してから時間がずれた。

平和使節団が島根県第3庁舎(第3庁舎前)にある竹島資料館に入ると、担当公務員が案内した。‘独島は日本の領土’ということを主張する映像を見ていた平和使節団の顔色がこわばった。イ・ヨンスさんの唇がぶるぶる震えた。約30分間資料館を見た平和使節団は一樣に“鬱陵島にある独島博物館に比べて規模と内容が貧弱、大雑把な気がする”と反応を示した。

平和使節団が早く席を立ったため、日本の右翼団体は場所を移して島根県民会館前で集会をした。(最初から県庁前の予定)

「幸福実現党」という右翼団体の会員20人余りが‘慰安婦は捏造だ’‘帰って来い竹島(独島の日本名称)’などが書かれたピケット(プラカード)を持ったままデモを行った。動員されたような10人余りの市民がカメラで集会の現場を撮っていた。

午後2時から小松電機ของบริษัท1階の大会議室で170人の聴衆が集まった中、平和をテーマにした韓国平和使節団の特別講演会が開かれた。講演に先立って、聴衆は日本植民地時代の朝鮮の独立闘士のために無料弁論をして弁護士資格を剥奪された布施辰治弁護士の映像を視聴した。彼は日本人初で韓国政府から建国勲章を受けており、自由法曹団を組織し、日本国民の人権と民主主義の発展に献身した人物だ。

同時刻に平和使節団パクヒョンサン、大邱(テグ)弁護士協会の独島特別委委員がこの会社2階の接見室で、大邱(テグ)地方弁護士会(会長ソクワンキ)を代表して小松理事長にソク会長の感謝の手紙を伝えた。強制慰安婦賠償を議決した(慰安婦に関する意見書を可決した)島根県議長に伝える手紙も一緒に渡した。

訪問日平和使節団団長は書道家ノサンドン画伯が書いた'審勢得人'作品を、イ・ヨンスさんは強制慰安婦たちの作品集の'お婆さん愛におちいる'をそれぞれ小松理事長に贈り物として伝えした。

◇…平和使節団は同日午前、島根県足立美術館の庭園を観覧した後、米子空港に向かった。帰国する際、小松電機産業のホームページに小松理事長を非難する数十個の書き込みが掲載されたという話を聞いた(実際にはメールが来た)。その中には'いまだに' '貧困国水準で外国に売春婦を排出する韓国が世界10位の経済大国なのか' '日本軍が強制的に慰安婦を連行したわけではなく、女たちが自発的にしたのではないか、慰安婦が軍人の何倍の給料を受けた' '韓国人の捏造に乗せられるな'などの真実を捏造する内容が大半だった。